

지·부·합·방

97년도 최우수지부상 수상한

# 남제주지부



○남제주 지부 이문하 지부장, 무엇보다도 지부회원간의 단합을 중시한다.

**제** 주도는 지역적인 특성상 육지와는 별도의 양돈산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온난한 날씨와 신선한 공기, 쾌적한 환경 등이 돼지를 사육하는데 아주 좋은 잇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질병유입이 쉽지가 않아 내부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돼지사육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내 돼지사육 두수는 30만두로 최근 2~3년 내에 사육두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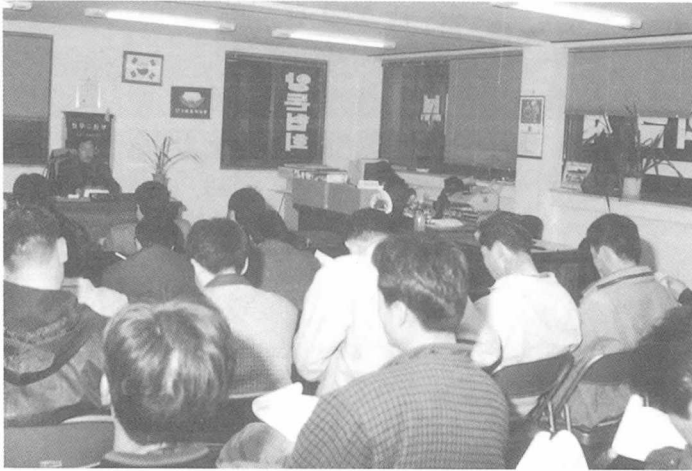
제주도는 1가구당 돼지사육 두수가 800여 마리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



▶ 지난해 8월 2일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 및 회원  
수련대회 기념사진

이며, 규모화와 현대화가 어느 곳보다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제주도는 제주지부와 서남지부, 그리고 남제주지부가 있으며, 본회 선정 97년도



◀남제주 지부는 매월 10일 저녁에 모든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월례회 모습

최우수지부인 남지부 지부가 속해 있는 남제주군내 돼지사육 규모는 도내 전체 사육두수 30만두중 10만 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남제주지부(지부장 : 이문하)는 지난 93년 3월에 지부로 설립되었으며, 초대 강창우 지부장, 2대 문성수 지부장 그리고 3대로 현 이문하 지부장에 이르고 있다. 전체 회원은 38명이며 이 지역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지부에 가입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함께 도모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등 상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지부회원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지부사업이 무척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월례회가 끝난 후에는 회원 전체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한잔을 나누는 등 끈끈한 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남제주 지부내 회원 1인당 평균 사육두수는 1,500여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적인 사육기법을 도입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제주도내 출하동향을 보면 도내 내수 판매와 외국으로의 수출돈 출하, 그리고 일반 상인들을 통한 판매가 있는데, 도내 내수물량의 경우 축협 제주공판장에서 3개지부와 양돈조합에 출하두수를 배정해 주면, 지부에서는 각 회원농가에 그 농가의 모돈두수에 대한 30% 이내의 물량을



배정해 주게 되며, 회원농가는 배정 받은대로 돼지를 출하하게 된다.

그 이외에는 수출돈으로 출하를 하게 되며, 상인출하와 육지에 대한 출하는 미미한 상황이라 한다.

제주지부는 매월 10일 저녁 7시30분에 지부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 필자가 참석했을때만 해도 30여명이 참석하는 등 지부사업에 대한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본회 제천지부와 홍성지부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는데, 지역 특성장 육지보다 비싼 배합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단점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

특히 월례회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한 회원 모두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소주 한잔을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끈끈한 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회원들의 경조사도 서로가 직접 챙겨주는 등 이 지역 회원 농가들은 자기자신보다는 협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자세로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제주지부는 지부사업으로 매년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 및 회원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 38명중 13농가가 사료를 공동구매하여 수수료로 전산화와 직원을 채용하여 공동백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 수출계약을 해마다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계통출하에도 참여하여 제주도의 돈육 공급을 안정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원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돈을 지부에서 구매하여 주고 있으며, 각종 기자제도 공동으로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회원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우리 지부는 그 무엇보다도 단합을 중요시합니다”라며 지부의 단합을 은연중

에 강조하는 이문하 지부장은 “올해의 중점사업을 자가배합사료 생산으로 두고 열심히 땀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요 개인보다는 지부사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남제주지부의 한 회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남제주지부와 회원들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취재 : 이병석> **養豚**

▼우측부터 이문하 지부장, 정영남, 문충남 부지부장, 김순실 씨

